

한·중 경제인(상하이) 초청 오찬연설

존경하는 한·중 경제인 여러분,

먼저 저와 우리 일행을 이처럼 따뜻하게 맞아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중국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오전 매우 의미 있는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 한 곳은 대한민국 정부의 법통이 시작된 임시정부 청사입니다. 일제치하의 암울했던 시기에 독립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던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지난해 22만명에 이르는 한국 국민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상하이는 임시정부와 함께 한국 국민의 가슴에 늘 희망의 이름으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 곳은 푸둥(浦東)입니다. ‘푸둥신구’를 둘러보면서 “중국의 미래는 상하이에 있고, 상하이의 미래는 푸둥에 있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 상하이는 개혁·개방 정책의 선봉에 서서 중국의 경제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두 자리 수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40여개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가 자리하고 있으며, 지난해만도 185억 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했습니

다. 중국 대학생들이 졸업 후에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도시도 이곳 상하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하이의 성공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상하이는 또한 한국과의 교류·협력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500여개에 이르는 한국 투자기업이 활동하고 있고, 한국의 6개 도시와 직항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중간 교역의 약 28%가 상하이지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하이를 축으로 하는 '장강 삼각주 지역'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대 중국 투자 총액의 32%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첨단기술 산업 투자가 이곳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하이는 한·중 경제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상하이 경제인 여러분,

상하이는 한국의 여수와 함께 2010년 엑스포 유치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벌였습니다. 다시 한번 상하이의 엑스포 유치를 축하드립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 1993년 대전 엑스포, 2002년 월드컵 대회와 같은 대형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을 이끄는 데 크게 기여한 한국 기업들의 경험과 역량이 상하이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양국의 경제인 여러분,

한국과 중국은 비슷한 시기에 새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바로 올해 2월과 3월의 일입니다. 또한 두 나라 국민 모두 젊은 지도자를 선택했습니다. 개혁과 변화에 대한 열정과 추진력이 강력하다는 점도 공통점입니다. 이러한 양국 사이의 특별한 공감대는 실질 협력관계를 더욱 활성화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양국의 잠재력과 경제협력 가능성,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미래를 생각할 때 협력의 여지는 무궁무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욱 넓혀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에너지와 자원 개발, 금융, 환경, 차세대 IT와 BT 등 미래첨단기술 부문에서 보다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협력의 방식도 다양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시아 경제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새로운 산업을 공동 창출해 나가고, 지리적 인접성을 활용하여 장기적으로는 인력·설비를 공유할 수 있는 협력의 틀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여러분의 협력이 더욱 증대되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인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 지역은 명실공히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총생산의 20% 이상이 동북아 지역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여년 후에는 30% 이상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동북아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 상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요충에 자리하고 있으며, 한국에 인천공항이 있다면 이곳에는 푸둥공항이 있습니다. 부산항과 상하이항은 세계적인 컨테이너 항구로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 모두 수준 높은 정보화 기반과 IT 능력, 그리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하이는 '3항(港), 2망(網) 프로젝트'와 2010년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세계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평화·번영을 위한 동북아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한국을 동북아의 물류와 금융, IT, R&D 허브로 만들고, 역내 협력을 강화해서 이웃나라와 함께 공동번영을 추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나아가 동북아 지역에 협

력과 통합의 질서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한·중 양국이 동북아 경제권을 양국 경제 발전의 큰 축으로 만들어 상호존중과 호혜의 원칙 위에서 서로 협력해 나간다면, 양적인 '규모의 경제' 이익을 확대함은 물론 질적인 '네트워크의 경제' 이익을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인 여러분,

맹자는 “천시(天時)는 지리(地理)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人和)만 못하다” 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대적 여건, 아무리 좋은 지리적 조건도 '긴밀한 협력'만은 못합니다. 상하이와 서울·부산, 중국과 한국이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사이좋은 이웃으로서 함께 전진해 나갑시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다시 한번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양국의 경제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